

인터로조, "스마트 헬스케어렌즈 시장 선점하겠다"

화이바이오메드 지분 5% 취득 결정 ..."예방과 치료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할 것"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입력 : 2018.06.08 10:11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0809464996275&type=1>

복사

"Best Vision Care Partner"
INTEROJO

콘택트렌즈 전문업체 **인터로조**가 '스마트 헬스케어 렌즈'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인터로조는 당뇨 진단을 비롯한 스마트 헬스케어렌즈 시장의 선점을 위해 화이바이오메드(PHI BIOMED)의 지분 5%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로조는 월드 클래스 300(World Class 300) 과제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뇨와 같은 질병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1년 과제 종료 이후 상용화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분투자를 결정한 화이바이오메드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에서 생체재료를 전공하는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회사로 성형재료 및 의료소재, 약물전달 기반 바이오의약품, 조직공학용 재생의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제약 회사다.

한세광 교수는 나노의약용 생체재료 개발의 세계적 권위자로 수술 후 유착방지기술 '메디커튼 R' 등 다양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 상,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점차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활용한 당뇨 광 진단 및 치료 시스템 뿐 아니라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로조가 화이바이오메드 및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개발하는 질병진단 및 치료용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는 초소형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와 광검출기가 장착된 렌즈로서 착용 이후 눈을 감으면, 암실과 같은 환경에서 혈관 속에 있는 당화혈색소(糖化血色素)를 빛으로 분석, 진단을 내리는 새로운 개념의 당뇨 광 진단기술이다.

미국의 구글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기존 스마트 콘택트렌즈인 구글렌즈의 경우 눈물이나 땀과 같은 체액은 이미 혈당이 높아진 20~30분 후에야 당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 혈당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인터로조와 국내 연구진이 개발중인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당뇨 환자의 눈물에 포함된 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후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렌즈 표면의 코팅이 자동으로 녹아내리면서 약물이 나와 혈당 수치 감지만 가능했던 구글렌즈와 달리 즉각적인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토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한당뇨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501만명으로 성인 10명 중 4명 정도는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의 바로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를 갖고 있다.

당뇨병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 추세다. 국제당뇨연맹(IDF)은 2017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약 4억2500만명의 성인(20~79세)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2045년까지 6억2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로조 관계자는 "인터로조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65% 이상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에 이르는 다국적 콘택트렌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 제조 기업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